피겨 김채연, 女 싱글 금메달 쾌거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쇼트 · 프리 · 총점 모두 개인 최고점
동계AG 출전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
'세계선수권 3연패' 사카모토도 제쳐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 김채연(수리고)이 세계선수권대회 3연패에 빛나는 사카모토 가오리(일본)를 제치고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김채연은 13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대회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9.07점, 예술점수(PCS) 68.49점을 합해 147.56점을 받았다.

전날 쇼트프로그램 점수 71.88점과 합해 총점 219.44점을 획득한 김채연은 211.90점을 얻은 사카모토 가오리(일본)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동메달은 205.20점을 기록한 요시다 하나(일본)에게 돌아갔다.

김채연은 이번 대회 금메달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사카모토를 제치며 기분좋은 '대형 사고'를 쳤다.

사카모토는 여자 싱글에서 세계적인 강자로 2022~2024년 세계선수권 3연패를 달성하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동메달을 수확했다.

쇼트프로그램에서 사카모토에 밀려 2위였던 김채연은 프리스케이팅에서 한 차례의 실수도 없는 '클린 연기'를 펼쳐 역전 우승에 성공했다. 사카모토는 두 차례 점프 실수가 나오면서 이변의 희생양이 됐다.

한국 피겨 선수가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2017년 삿포로 대회 최다빈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아울러 역대 4번째 메달이다. 김채연, 최다빈 외에 1999년 강원 대회 아이스댄스에서 양태화-이천군 조가 동메달을, 2011년 아스타나-알마티 대회에서 곽민정이 여자 싱글 동메달을 딴 바 있다.

지난해 4대륙선수권대회 은메달, 세계선수권대회 동메달의 성적을 내며 세계 정상급으로 발돋움한 김채연은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강적을 꺾으며 환하게 웃었다.

김채연은 쇼트프로그램(종전 71.39점)과 프리스케이팅(종전 139.45점), 총점에서 모두 개인 최고점을 새로 썼다.

특히 김채연의 이번 대회 총점은 지난해 11월 2024~2025시즌 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6차 대회에서 작성한 208.47점을 10.97점이나 끌어올린 것이다.

침착함을 앞세운 김채연의 안정적인 연기가 돋보였다.

쇼트프로그램 순위에 따라 프리스케이팅에서 전체 24명 중 23번째로 빙판 위에 선 김채연은 '내면의 속삭임(Whisperers from the heart)'에 따라 빙판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더블 악셀과 트리플 루프를 안정적으로 소화하며 기분좋게 출발한 김채연은 트리플 플립-더블 토루프-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실수없이 뛰어 수행점수(GOE) 0.95점을 챙겼다.

트리플 살코도 무난히 뛴 김채연은 플라잉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을 최고 난도인 레벨4로 처리했다.

김채연은 10%의 가산점이 붙는 연기 후반부에 배치한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완벽하게 뛰었다. 기본점 11.11점에 GOE를 1.65점이나 따냈다.

트리플 러츠-더블 악셀 시퀀스 점프와 트리플 플립도 무난히 소화하며 점프 과제를 모두 마친 김채연은 스텝 시퀀스에서도 레벨4를 받아냈다.

코레오 시퀀스로 연기를 이어간 김채연은 플라잉 카멜 스핀,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을 모두 레벨4로 처리하며 연기를 마쳤다.

사카모토는 연기 후반부에 뛰려고 했던 트리플 플립-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뛰다 빙판 위에 넘어지는 바람에 김채연에게 역전 우승을 허용했다.

함께 출전한 김서영(수리고)은 TES 52.32점, PCS 50.99점, 감점 4점으로 99.31점을 획득했다.

쇼트프로그램 점수 51.23점과 합해 총점 150.54점이 된 김서영은 7위에 올랐다.

쇼트프로그램에서도 두 차례 점프 실수가 있었던 김서영은 이날도 연기 후반부에 점프 난조를 겪으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뉴시스

13일(현지시간)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에 출전한 김채연이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한국 바이애슬론, 女 계주 은메달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고은정 · 압바꾸모바 등

한국 바이애슬론 고은정(전북체육회), 예카테리나 압바꾸모바(전남체육회), 아베 마리야, 정주미(이상 포천시청)가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여자 계주 은메달을 획득했다.

고은정, 압바꾸모바, 아베 마리야, 정주미는 13일(한국 시간) 중국 하얼빈 야부리 스키리조트에서 열린 대회 여자 계주 4×6km에서 1시간29분27초3에 들어와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한국은 여자 7.5km 스프린트 금메달(압바꾸모바)에 이어 이번 대회 두 번째 바이애슬론 메달을 땄다.

금메달은 중국(1시간29분6초3), 동메달은 카자흐스탄(1시간30분1초9)이 차지했다. 일본은 1시간35분6초8로 4위, 몽골은 1시간48분16초로 5위에 그쳤다.

바이애슬론은 크로스컨트리와 사격을 결합한 종목이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선 여자 7.5km 스프린트와 4×6km 계주, 남자 10km 스프린트와 4×7.5km 계주까지 4개 종목이 열렸다.

압바꾸모바는 스프린트와 계주를 모두 석권하며 전 종목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뉴시스

"올림픽 유치 능력 충분"

전북체육회, 1997 무주 · 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 등
과거 대회 유치 사례 소개… "특정 도시만의 잔치 안돼"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도전장을 낸 전북이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는 13일 "올림픽을 비롯한 대규모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서울시라는 특정도시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북은 과거 국제대회를 유치한 사례를 소개했다.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는 1997년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됐다. 유니버시아드는 전 세계 대학생의 종합경기대회로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하계와 동계를 2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전북은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 백서에 의하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에 따라 동계올림픽 등 대형(대규모)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했다.

당시 대회에는 총 48개국, 약 1400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2017년 무주에서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세계는 무주 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 되는 지구촌'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2017년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무주에서 펼쳐졌다.

세계태권도연맹 208개 회원국 중 183개, 선수와 임원 등 약 1800명이 참가했다. 이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였다.

당시 대회 결과보고회에 따르면 무주에 선수와 관계자를 포함해 약 4만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방문했다. 대회 개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67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가 치러졌다. 2023년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 동안 전북 일원에서 열렸다.

당시 '하나 된 스포츠! 즐거운 어울림!'이란 슬로건으로, 총 26개 종목(정식 24개·시범 2개)에 전 세계 약 1만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사전 타당성 연구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한 결과 전북에 미치는 직접 경제적 파급효과를 약 240억원으로 산출한 바 있다. /뉴시스

정몽규, 축구협회장 선거 토론회 거부

신문선 · 허정무 등은 비판

대한축구협회 회장 4연임에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가 "비방 목적의 축구협회장 토론회엔 참여하지 않겠다"고 13일 밝혔다.

정몽규 후보 선거사무소는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후보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정몽규,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 3명의 후보에게 토론회 참가를 원할 경우 이날 오후 3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축구협회장 선거 규정상 모든 후보가 동의해야만 토론회가 열릴 수 있다.

나머지 두 후보는 정 후보의 토론회 불참 선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 후보는 "12년간 축구협회를 정당하게 운영했다면 당당하게 삼자 토론에 나서야 하지 않나. 무엇이 그리 두렵나"며 "토론회는 나, 허 후보와의 약속이 아닌 국민과의 약속이다. 비방 목적의 토론회로 폄하하면서 기피하는 것은 페어플레이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과 축구팬들이 지켜보는 토론회가 어찌 비방의 자리인가. 토론회가 비방 목적이 될 거라고 예단하는 건 토론회를 기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국민은 이번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정 후보의 '기권패'로 판단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허 후보는 "국민과 모든 축구인이 기다려온 토론회가 정 전 회장 한 사람 때문에 무산"됐다며 "무엇이 비방과 인신공격이란 말인가? 스스로 비난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토론회에 나와 근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